

# 강의하는 샤먼이 벌이는 신명나는 곳판

김용옥 신드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경한 텍스트 해석과 대중들의 맹목적 추종은 문제

이은봉 |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대중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김용옥은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마치 무당이 굿을 벌이듯,

동양철학의 정수를 풀어낸다. 거기에는 분명 고급 코미디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 그러나 그의 곳판은

거대한 자본이 결합된 인위적인 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르다. 김용옥의 엔터테인먼트는 부채 대신

백묵 하나로 흑판에 부적과 같은 한자를 내갈겨 쓰며 동양철학을 설파하는, 일종의 판소리다.

솔직히 나 자신은 평소 김용옥의 강의나 저술 활동에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신드롬'이라는 말은 과연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김용옥에 대한 지나친 추종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에게는 그 양극 감정의 수준이 거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치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심하게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IMF가 그 변동을 의식의 표피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 전통적인 기업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방향을 잃고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자연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관도 파괴됐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이 이런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어른들만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확실한 지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는 막연히 이민이나 가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이 사회의 허리부문에 해당하는 30~40대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종교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제도

화된 종교들은 지금도 십일조 헌금 타령이나 하고 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 향상에 걸맞는 설교가 드물다. 겨우 서구 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서구의 시민주적 합리성을 IMF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소화하고 있는 우리네들이나, 사정은 다르지만 합리주의에 지친 서양인들의 인생과 자아 찾기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동양 철학이 묘하게 화음을 이뤄 만나고 있다.

## 가치관 상실한 대중 사로잡아

이런 배경의 한 가운데서 김용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김용옥을 노련한 엔터테이너라고 한다. 맞는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말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는 대중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강의하는 샤먼'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의 외모를 보면, 샤먼의 울긋불긋한 옷 대신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다. 무당의 모자 대신 증처럼 까까머리를 하고 있다. 그는 무당의 '무가' 대신에 '동양철학'을 '풀고' 있다. 그의 강의장소에는 항상 곳판이 벌어진단다. 곳치고는 큰 곳이다. 대한민국 제일의 방송사가 전국에 실황중계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굿을 할 때 어떻게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무당내력' 대신에 김용옥은 항상 자신이 대만

대와 동경대, 하버드대를 거쳐 원광대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다는 '내력'을 반복하고 있다. 《노자와 21세기(전3권)》(통나무)에서 김용옥은 《도덕경》 전편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연애했으며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내력'을 도구 삼아 풀고 있다. 무당에게는 자신의 내력이 슬픈 '한'으로 읊어지지만 김용옥에게는 하나의 '자랑'으로 읊어지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샤먼들에게 때로 엑스터시(沒我)가 있고 그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만큼 김용옥도 강의하다가 때로 엑스터시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는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강의한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두시간 동안 미동도 없었다. 기침소리 하나 들을 수 없었다. 오직 낭랑한 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을 뿐이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영어가 잘 되었다. 아니 영어를 잘했다기보다는, 단위에 올라선 후 순식간에 나는 내가 외국어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앞의 책 1권, 23~24면)

이런 모습은 TV강의에서도 간간히 목격된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중하는 모습에서 어떤 경건함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강의에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강생들은 그런 엑스터시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드

디어 그런 엑스터시의 순간이 오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요즈음 《논어》 강의 때는 더러 박수부대들이 의례적인 박수를 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 박학다식 자랑하는 고급 코미디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큰 곳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됐으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서구적 가치관들을 열심히 귀동냥으로 들어보고 실천도 해봤지만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배고픈 우리의 영혼까지 움직이는 데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마음 밑바닥까지 울리는 '신바람'이 필요하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옥은 가장 알맞은 인물이다. 또 '동양철학'이 얼마나 좋은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살 길과 구원이 저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이'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도덕경》이 무당들이 읊는 무가 따위와 어찌 비교가 되겠는가? 무당들이 기존의 사회구조에서 오는 여러 모순들을 걸쭉한 재담과 욕설 혹은 익살로 푸는 것과 같이 김용옥은 때로 파격적인 욕설을 서슴없이 퍼붓는다. 그에게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란 없는 것 같다. 코미디언들이 하는 재담에는 좀처럼 웃지 않는 나도 김용옥의 강의를 들을 때는 더러 웃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고급 코미디언이다. 그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애교로 받아들이고 웃게 되는지 모르겠다. 즉 강의가 재미있다는 말이다.

나는 김용옥을 사면에 비교했는데, 이것은 그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어쨌든 사면적인 무엇과 연결돼야 하는데, 김용옥은 학자로서 혹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경지를 보여줬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강의를 엔터테인먼트와 연결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층과 연결하고 싶으면 사머니즘 문화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서태지의 엔터테인먼트가 종래의 가수들처럼 '이미 만들어진 무대'에 나와 한 곡조 뽑고 나가는 모습과 달리 광고와 기획 등 거대한 자본이 결합된 인위적인 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김용옥의 엔터테인먼트는 흑판에 백묵 하나 달랑 들고



김용옥의 TV 강의는 다분히 사면적이다. 무당이 벌이는 것처럼, 그의 일언일행은 한국사회의 심층을 살풀이해 철학 강연장을 거대한 엑스터시의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김용옥 신드롬을 동양철학의 한 이단이나 단순한 대중영합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은 강의 저본으로 사용되는 김용옥의 저서와 그의 노자 해석을 반박해 화제가 된 이경숙의 책.

나와 뽑고 나가는 판소리와 유사하다. 부채 대신 백묵 하나로 흑판에 부적과 같은 한자를 내걸겨 쓰며 동양철학의 '박학다식'을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 대중들의 맹목적 추종 이끌어낼 소지 있어

사람들이 왜 《노자와 21세기》를 읽고 열광하는지 알고 싶어 나도 그 책을 사서 읽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중간에 읽기를 그만뒀다. 번역도 생경했지만 뜻풀이를 너무도 장황하게 벌려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독서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읽을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을 논어》(통나무)는 공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전통적인 유학자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 나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도덕경》 번역에는 생경한 부분도 많아서 아무리 아마추어이지만 이경숙이라는 가정주부의 도전에도 일리 있는 구석은 있어 보이므로 한문을 읽는 학계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김용옥의 고전 강의에서 위험스러운 부분도 보인다. 이는 '고전'을 강의하면서 때로 '현실'의 문제로 곧바로 뛰어와 몇 천년 시간거리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타난다. 고

전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전'으로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고전사상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비학문적이 되기도 쉽지만, 청강생 가운데 그런 강의를 듣고 현실에 대한 해법이라도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는 천박한 인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김용옥을 너무도 추켜세우는 나머지 "이 나라에 그만한 학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저는 그 정도도 못되면서 뒤에서 비평이나 하고 있는 거겠지" "김용옥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놈들이 그를 욕하는 거야"는 투의 말을 많이 하기도 한다. 김용옥을 정점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그야말로 'X'도 아니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의 '거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야무리 위대하고 박학다식한 학자라도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깨우치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모르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에는 하나밖에 없는 일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